

ACE 3 :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부터는 6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먼저 사도 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동정녀 탄생 **Virgin Birth**),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고난 **Passion**),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시며,(부활 **Resurrection**)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재위 **Session**)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재림 **2nd Coming**)입니다.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위격{Person of Christ}과, 예수님의 하신 일(Work of Chris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부분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동정녀 탄생 **Virgin Birth**),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말해주는 단어는

그의 외아들(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는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인성을 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위격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의 위격을 이루신 분, 二性一位라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까지, 아담이 타락 한 후 예수님이 오시까지 4000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450 년이 지나고 나서 Chalcedon 공의회에서 이 교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30 년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Hypostatic Union, 2 성 1 위가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계시가 완성된 성경을 다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요즘 internet 매체를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종교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것은 교리의 근본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교리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요약하여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고백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역사상 있었던 단순히 위대한 사람으로 받아 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아 들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인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았으면서도 연합되어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또 신성과 인성이 이중적 상태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신인(神人, God-man)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믿고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계시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고백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Powerful 한 Topic 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主)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Lord 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선, Tetragrammaton YHWH 를 번역한 말입니다.

창세기 2 : 4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락이 이러하니라

Genesis 2:4 (KJ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YHWH 가 the Lord 라고 번역하게 된 과정은, 히브리 사람들은 YHWH 를 읽을 때 Adonai 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Adonai 라는 말은 주(主) 또는 폐하를 의미합니다.

KJV 에서는 YHWH 를 Jehovah 라고 직역하지 않고 히브리적 전통을 따라 the Lord 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말 성경 흠정역에서는 여호와라고 직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The Lord, Adonai 는 같은 말에서 나온 다른 호칭입니다.

주 예수님은 ‘위엄을 가지신 여호와다’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Joshua 이고,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Jesus 입니다. 예수는 Jesus 를 한자로 번역한 것을 우리 말로 읽은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Joshua 는 히브리의 남자 이름에는 너무 흔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이름을 붙여 “나사렛 예수”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라는 의미입니다. Christ 와 Messiah 는 같은 의미인데, Christ 는 그리스어이고, Messiah 는 히브리어입니다. Messiah 는 예수님의 직무적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시고,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1.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

1.1.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키는 것으로,

요한 복음 5 : 18 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본질(essence, substance)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 :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Heb 1:5

5 For unto which of the angels said he at any time,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And again,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KJV)

이 구절들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낳았다 하는 말은 born 이 아닌, begotten 입니다. begotten 은 헬라어 monogenes 를 번역한 말인데 “혼자서 발생한” 의 뜻입니다.

Only begotten Son-혼자서 발생한- ‘독생자의 신학적 정의는 성자의 영원한 발생(eternal generation of the Son),을 의미하는 말로,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성자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발생한다)” 는 의미입니다.

“성자는 아버지로 부터 발생한다” 의 의미는 ‘아버지로 부터 스스로 혼자서 발생한 아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아들이 탄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탄생하였다라는 말 대신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피조성이 없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only begotten Son 입니다. Only Begotten Son 을 의역하여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 요한 복음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을 가르키는 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하여 죽이고자 날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목숨을 내 놓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 가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태복음 26 : 63)**”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길,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태복음 26 : 64)”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마태복음 26 : 65)**”

참람하다(blasphemy)는 의미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뜻이며,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이 삼위일체의 제 2 위이신 성자 하나님임을 천명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말로 자신의 목숨과 바꾼 고백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목숨을 내 걸고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해야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 분의 위대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히 흘러 들어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에 넘칠 때 우리의 삶은 powerful 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Immanuel 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1.2 아들로서 예수님의 특성

1.2.1 영생을 가지신 분이다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26 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고 천명하십니다.

또 요일 5:11 은 이 생명이 영생임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Eternal life, Zoe Aionion)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사도는 이 영생은 사람들을 가르쳐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 : 4 그(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반면에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영생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자신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였습니다.

1.2.2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롬 1:4 에는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에서 성결의 영은 성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proclamation)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린 우주의 새로운 질서, 새 세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1.2.3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상속하실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으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상속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를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디도서 3 : 7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계획은 무산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신천신지의 주로서 재림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1.2.4 메시아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 :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재림으로 약속을 완전히 성취 하십니다.

2.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성경상의 증거.

2.1 구약의 증거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메시아의 신성은 예수님의 신성에 기초가 됩니다.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 구절은 메시아의 신성을 말해 줍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하님께만 들려지는 모든 신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미가 5:2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But thou, Bethlehem Ephratah, though thou be little among the thousands of Judah, yet out of thee shall he come forth unto me that is to be ruler in Israel; whose goings forth have been from of old, from everlasting.

이 구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헬에서 탄생을 예언한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자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구약의 구절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구약의 구절들입니다.

2.2 신약의 증거

신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자의식과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증거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하십시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중요함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쳐도, 본인이 “나는 아닌데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예요” 하면 천만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던 전체 기간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어렸을 적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점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독특한 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느꼈다 할지라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살 때에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귀가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만 알고 하룻길을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 : 49 --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의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 : 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의 종교적 배경하에서는 하나님을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증보자로서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다른 예로서 'Seven I AM'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identification 입니다.

1. "I am the bread of life" (6:35)

요한복음 6 :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8:12; 9:5)

3. "I am the door" (10:7, 9)

4. "I am the good shepherd" (10:11)

5.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11:25)

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14:6)

7. "I am the true vine" (15:1)

이 두절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 외에 증보자로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갖는 자의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2.2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표적(Sign)으로 아들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요 2:12-19). 이 표적(Sign)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표적을 보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됨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위에 계신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Seven Miracle 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5 병 2 어의 기적, 나면서
장님 된자를 보게 한 것,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은 부활입니다.

2.2.3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며
친밀히 알았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마 16:16 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는

요한복음 20 : 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사도행전 9 : 20 죽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2.3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부와 성령이 함께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 오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3:16-17 에는

마태복음 3 :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 :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의식에 의해서나, 제자들의 고백에 의해서나, 하나님의 확증에 의해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3.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님의 신성의 필요성

인터넷 중앙 일보에 세종 대학의 김 응욱 교수가 예수님에 대해 쓰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독교 역사의 쓰레기 더미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도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독교적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아들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3.1 신성은 증보자로서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 :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증보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증보자의 속성과 임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증보자의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양측의 성질을 공통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간으로서 인성을 완벽히 갖고 계십니다. 증보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증보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보자인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 안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심을 잘 개발하면 인간은 모두 신이 된다고 하는

범신론적 구원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범신론적 구원에는 증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범신론적 구원관에는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선심으로 신이 되는 구원에 이룬다고 하는

것이기에 증보자도 필요없고, 또 증보자의 신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증보자의 임무는, 양측의 약속을 견고히 하는 보증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공고히 하시는 보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증보자인 예수님은 인간이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책임을 떠 맡아야 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증보자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3.2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신분(status)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여러분들은 거지 왕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어느 왕자가 세상 구경을 너무하고 싶어 껌을 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 왕자의옷을 입히고, 자기는 그 사람의 옷을 바꾸어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찾아 옷을 서로 바꾸어 입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옷지 못할 happening 이 생겼습니다. 궁궐에 있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도 여전히 거지 노릇을 하는 것이요,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도 여전히 왕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큼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으면 옷을 아무리 바꾸어 입어도 옛날 그대로이다!

왕자와 거지는 옷만 서로 바꿔 입어 신분에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옷만 바꿔 입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 우리의 신분조차 아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3.2.1.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들어 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 : 6 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 오시면, 영생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닌, 가까이 계신 아바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정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3.2.2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으로 예수님과 형제 관계로 들어 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 : 29 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함으로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아우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님이 상속하실 신천신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3.2.3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롬 5:17 에서,

로마서 5 :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떻게 왕노릇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 세상에는 생명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쥐라도 달려들어 잡아 먹습니다. 쥐는 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면 죽어라 하고 도망갑니다. 사자는 사자의 생명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덩치가 큰 소도 잡아 먹겠다고 달려 듭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이 갖는 특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천지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 천지간에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엄몰해 오는 인생의 모든 풍랑 앞에서, 우리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또 자신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결코 시시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처럼 사는 것은 여러 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Amen!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